



좋은 친구

FRIENDS

2023. 7.
Vol.015

사단법인 프렌즈는 2006년 오륜교회와 뜻있는 분들이 심은 소중한 씨앗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국제구호개발NGO로 성장하였습니다.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촌 18개국 29개 사업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학교를 방문한 프렌즈 김은호 이사장과 내빈들을 환영하는 우간다 가야자 주니어 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 학생들의 밝고 환한 미소가 이번 만남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는데요, 학교에 기증될 컴퓨터로 학생들의 배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튀르키예 지진피해현장에서 힘을 합쳐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사단원들과 현지 주민의 모습. 폭우 피해에 강풍까지 겹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반년간 <좋은친구 FRIENDS> vol.015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발행정보	제15호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장 이하 가나다 순
발행일	2023년 7월 31일	이사장 김은호(오륜교회 담임목사)
발행인	김은호	이사 김명진(크리스탈치과 원장)
기획편집	(사)프렌즈 대외협력팀	김정섭((주)토비아스 이사)
주소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신현수(코모키이비인후과 원장)
전화	02-483-5007	옥유수((주)두리푸드시스템 대표이사)
E-MAIL	friends@hifriends.or.kr	윤승철(시카고치과 원장)
Facebook	hifriends153	최병룡(밝은누리안과 원장)
	검색 '사단법인프렌즈'	감사 마철현(세무법인 민화 대표 세무사)

2023년 1월 1일~ 6월 30일 신규 후원자분들입니다.

개인 강영철 강현주 고일국 권하영 김다니엘 김도연 김동석 김미향 김선희 김영란 김유경 김주예 김준엽 김하은 남동진 민진홍 박원아 박진아 서승권 손성호 송성훈 신해림 양금영 유리나 윤대영 이경 이미희 이병기 이승연 이신애 이연주 이은희 이진영 이하나(강하름) 장정원 정선희 정하나 조민정 조민호 조아라 조요한 최귀선 최우정 최재현 최한슬 허현숙

단체 (주)파즈코리아 경북은누리약국 몸뚱교회 양곡참빛교회 영화무역(주) 주식회사 반석종합개발 주식회사체리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 환인제약(주)

“ 프렌즈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CONTENTS

- 04 인사말
김명진 (사)프렌즈 이사
- 05 해외사업 '하나'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와 함께 떠나는 새로운 여정에 초대합니다.
- 10 해외사업 '둘'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 긴급구호 봉사단 이야기
- 16 후원자스토리
성공이 아닌 섬김을 배우는 두레줄기학교를 찾아서
- 20 핸드온소식
신규키트출시 & 핸드온 이모저모
- 22 나눔마당
- 전기를 통해 빛을, 그리고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선물합니다.
- 프렌즈 후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 24 추천해요
걷기로 기부하는 체리월드
- 26 프렌즈 News
2023 프렌즈 상반기



Altruism : 이기심이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과 행동

이것은 이타심(利他心)의 사전적 의미이고, 영어로는 Selfism의 반대로 Altruis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단어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박제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나 기부가 아니라 나를 위한 봉사나 기부가 되고, 순수한 의미의 봉사나 기부가 되기 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혹은 남들이 알아주거나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봉사나 기부가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아마도 이타심과는 거리가 먼 '자기애'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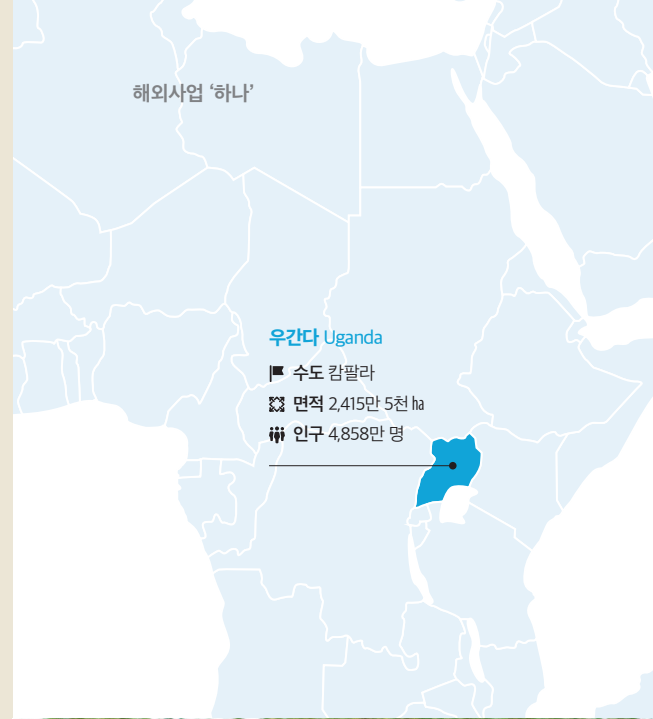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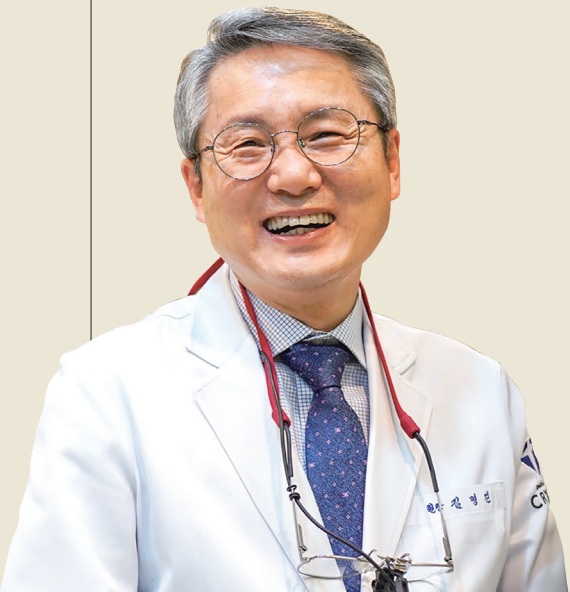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애가 배제된 순수한 동기의 사랑과 봉사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을 내어주며, 보상이나 명예, 심지어 세속적인 이익 등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런 봉사야말로 지치고 병들어가는 세상을 치유하는 참된 힘이 됩니다.

사단법인 프렌즈는 이런 참된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 자신의 것들로, 아니 이 세상에서 잠시 맡아 관리하는 모든 것으로 섬기며 나누고, 치유하며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내 이름 석 자가 보이지 않아도 그저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프렌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나눠주고 섬기면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나누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께서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릇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봉사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Selfism으로 오염되지 않은 Altruism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프렌즈와 함께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참된 힘, 순수한 나눔과 섬김이 가득한 멋진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희망의 길을 함께 걷는 친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 **김명진**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와 함께 떠나는 새로운 여정에 초대합니다.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를 소개합니다.

우간다는 동아프리카 평원 지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적도를 지나가는 위치에 있지만, 고원지대의 영향(평균 고도 1,000~1,200m)을 받아 연중 기온의 변화가 크지 않고 연평균 20~28℃의 좋은 날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수와 산악빙하, 폭포를 감싸고 있는 명산인 르웬조리산(Mt.Ruwenzori), 그리고 사자, 코끼리, 기린 등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가 있는 10여 개의 국립 공원과 아프리카의 젓줄, 나일강의 근원이라 불리는 진자의 나일강까지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아프리카의 진주'라는 말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1908년 '나의 아프리카 여행기'에서 처음 표현하여 불리게 된 우간다의 또 다른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Pearl of Africa'라는 표현의 브랜드나 이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닉네임 이면에는 세계 4위 말라리아 발병 국가라는 것과 38년 독재정권의 폐해, 남아있는 반정부군의 테러,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부족 간의 빈부격차로 수도 캄팔라에서는 구걸하는 어린이와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그릇된 방식으로 강도나 절도를 일으키는 등 각종 사건, 사고들로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는 곳이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 어디나 그렇듯, 우간다에도 그들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30세 미만의 연령대가 인구의 78%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3번째로 젊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5세부터 18세까지의 연령대가 가장 많은 국민의 비율을 차지하는 '젊은이들의 나라'인 우간다의 공교육은 무상교육이라는 프레임으로 교육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은 150~200명, 고학년은 100명 전후로 한 반에서 공부하는데, 아주 열악한 곳은 500명까지 한 반에 배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 반에 배정되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체벌로 인한 정서적인 상처, 위생과 성의 문제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육을 위한 책이 없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교사들은 적은 급여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려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교복을 입고 등교하지만 허탈한 발걸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젊은이들은 기술과 배움이 없다면 번듯한 직장은 생각하기 어렵고, 그저 생계를 위한 청소부나, 경비업체, 일용노동직, 마켓 아르바이트로만 살아가기도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와 함께 우정의 길을 시작하다

저희는 프렌즈 NGO 등록을 위해서 2021년 7월 변호사와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International NGO를 등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5년간의 사업 계획과 예산안, 각종 증빙 서

류 등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는 과정들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8월 본부와 소통을 시작했는데 2022년 2월이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우간다의 NGO 관리가 강화되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양식들이 추가되면서 예상한 것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본래 3개월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들었지만, 약 10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에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2023년 1월, 비로소 최종 등록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프렌즈 활동들이 우간다의 변화와 성장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마음과 기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젊은 진주들을 품게 될 희망의 요람

NGO 등록을 진행하며 동시에 모든 활동의 핵심 기반이 될 리더십센터를 건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COU(우간다성공회)로부터 캄팔라시에 위치한 르웨자 센터 내 1,200평의 부지를 기증받았고, 2층 규모로 건축이 진행되었으며 3월 21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90명의 훈련생들이 머물며 훈련받을 수 있는 숙소와 강의실, 외부 방문자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등의 제반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프렌즈 우간다 사무실 또한 이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맞물려 건축자재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환율도 불리해져 어려움이 많았으나,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멋진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근원지처럼 이곳에서 우간다의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물줄기가 시작되길 바라며, 우간다를 일으키고 새롭게 할 소중한 인재들이 배출되는 희망의 요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배움과 성장에 목마른 친구들을 찾아서
3월 25일에는 프렌즈 김은호 이사장님과 함께 우간다를 방문하신 분들이 가야자 주니어 초등학교(Gayaza Junior School)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야자 주니어 초등학교는 1905년에 세워진 학교로 캄팔라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인권을 위해 세워진 학교로 56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이 필요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가 없었는데 김은호 이사장님과 팀이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컴퓨터 50대 기증을 약속하셨고, 학교는 이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많은 학교가 있지만, 여학생들의 교육과 인권에 중점을 둔 초등학교에 양질의 교육을 위한 컴퓨터를 기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컴퓨터 기증을 위한 후원금이 마련되었고, 학교 지도자들과 미팅을 마쳤으며, 학교 내 컴퓨터실 공간이 마련 되는대로 컴퓨터를 기증하고 교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비 지역에 전달된 생명의 물
우간다 북부에 '네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COU에 속해 있는 훈련센터(Retreat Centre)가 있습니다. 연간 7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의 많은 이들이 찾아와 쉼과 회복을 얻고 돌아가는 곳인데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안암제일공동체의 후원으로 생명의 물을 선물받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지하수 개발을 추진했는데, 전문 엔지니어의 자문을 받아 보니 센터가 있는 곳이 해발 1,470m로 다소 높은 지역이라 암반 밑에 지하수가 있는 곳까지는 너무 깊어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사를 해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지하수를 얻지 못하게 되어도 비용은 동일하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대형물탱크를 만들어 빗물을 정수한 후 저장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대형물탱크를 두 개 만들고 물탱크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정수 과정을 거치고 다시 깨끗한 물을 다음 물탱크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 추진했습니다. 흔히 보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탱크는 용량도 부족할뿐더러 약하기



때문에, 돌과 시멘트로 만든 다음에 내부를 방수 처리하고 펌프와 정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대형 물탱크를 통해 약 7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약 3천 명의 사람이 3개월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양입니다. 식수는 이 물을 끓여서 사용하고, 그 외 사용하는 물은 그대로 사용하는 구조인데 강수량은 넉넉한 곳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1차 정수를 하고 보관하기에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가는 더 좋은 길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간다에 와서 이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가는 법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좋은 벗은 서로를 바르고 기쁜 길로 안내합니다. 이제 함께 가는 바르고 기쁜 그 길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길을 계속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지켜봐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 긴급구호 봉사단 이야기



출처: BBC /이탈리아 지진화산연구소(INGV)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6분,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24분, 다시 규모 7.5의 강진이 있었고, 6천 회가 넘는 여진이 이어졌으며, 2월 21일에는 규모 6.4와 5.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이 발표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사망자 수는 50,399명, 부상자는 107,204명(4/6기준)이며, 시리아 보건부와 화이트헬멧이 발표한 시리아 지진 피해 사망자 수는 7,259명, 부상자는 12,000명 이상(4/25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두 피해지역의 공통점은 ‘시리아 난민’입니다. 1차 강진의 진원지였던 가지안테프는 시리아 난민들이 몰려들어 2021년 기준 인구가 213만 명까지 불어난 곳이며,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들이 집중되면서 세워진 난민촌이 많은 곳입니다.

프렌즈는 3월 13일과 4월 5일 2회에 걸쳐 봉사단을 파견하였고,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키트 배분과 피해 주거지 보수 및 재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의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5개월이 흐른 지금,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상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현지에서 함께 지진을 겪었고, 시리아 난민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로 함께 아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비전, 이룸 두 활동가의 이야기를 통해 현장의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진이 시작된 날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눈을 떴는데 뭔가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위를 보니 전등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진이었던 거죠.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남편 말을 듣고는 내복을 입은 채 뛰어나왔어요. 그날 참 추웠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영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때는 때아닌 눈도 많이 오고 기온도 영하였어요. 날씨는 춥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만, 다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침을 맞고, 정오가 지나 서야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차 때 충격을 견디고 버텼던 건물들이 2차 때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어나오고, 차들은 엉키고 도로를 지나다 전복되고, 아비규환이었어요. 전쟁이 나면 딱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지진이 나기 전에 들어온 봉사팀이 있었는데 마지막 일정을 남겨두고 지진이 발생했어요. 머물던 숙소 바로 뒷 건물이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루 전까지 이곳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치열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빨리 공항으로 데려가 달라, 티켓은 왜 구할 수가 없느냐, 아이가 있어 꼭 가야 한다 등등. 공항도 폐쇄되었고 도로유실로 공항에 갈 수도 없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자 뼈아픈 반성이 이어졌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안전과 안위가 먼저였던 스스로의 모습이 아프게 다가온거죠.

사랑하는 제자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시리아 난민들은 대부분 임시 거처에서 살거나 노후된 주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이 너무나 걱정되었어요. 여기저기서 소식을 받고 있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키우던 제자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나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였어요. 태권도 유망주였죠. 1차 지진 후 집에 들어갔다가 2차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는데 아이와 함께 들어간 7명의 가족 모두가 그 자리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품어왔던 꿈을 채 펼치기도 전에 그렇게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고통받는 아이들

전쟁이나 재난 상황 속에서 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고통받는 것은 언제나 아이들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곳에서 난민 아동들이 철근을 모아 팔려고 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먹을 것, 입을 것, 팔 것을 찾기 위해 그 위험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보니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각했어요. 나중에 아이들을 위해 센터와 텐트촌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는 활동들도 진행했죠. 그렇게 큰일을 겪으면서도 작은 활동 하나에도 금방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노라니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민들과 함께 대피소에서

지진이 나고 한동안 대피소에서 생활하다가 복귀하자마자 바로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긴급구호 봉사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자도, 재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뛰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진이 계속되는 위험한 상황이라 와줄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기적처럼 봉사단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진'구호팀이 '홍수'구호팀이 되고...

1차 긴급구호 봉사단이 저희 베이스가 있는 피해지역에 도착한 바로 그날, 강력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내리더니, 1차 봉사단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두려움에 파손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집을 잃은 난민들은 갈 곳을 잃은 채 방황하고, 약해진 지반에 폭우가 쏟아지니 겨우 버티던 집과 건물도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도시는 물에 잠기고, 차량은 떠내려가고, 센터 지하실도 물이 차올라 긴급히 작업해야 했고요. 터키 방송이나 외신에서 실시간으로 보도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단전과 단수도 며칠째 계속되었고, 흠어져 있는 난민 가정들에 생수를 공수하느라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겪어왔던 것들만 단원들은 10일 만에 다 겪었던 것 같아요.

난민들의 사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비 오던 첫날 텐트촌에 비닐을 치고 보호막을 만드느라 애를 썼는데 하루 만에 다 사라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이 차서 젖은 상태로 난민 아동들이 쪽잠을 자느라 감기에 걸리고 있던 병도 생길 지경이었지요. 지진구호인지 홍수구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는데 감사하게도 단원들이 굴하지 않고 책임을 다해줬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구호 물품을 배분하고, 난민촌을 방문하고, 망가진 집들을 수리하며 페인트칠을 하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처럼 미소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얼마나 큰 힘을 얻었나 모릅니다.

사마 이야기

활동 중에 만났던 '사마(가명)' 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사마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시리아 내전 중에 모두 잃었어요. 튀르키예로 와서 다시 쌍둥이 딸이 생겼는데 이번 지진으로 급히 대피하다가 또다시 잃게 되었습니다. 사마는 시리아 난민이 겪는 아픔을 모두 겪은 여성이에요. 여러 번 결혼해야 했고, 심한 가정 폭력과 원치 않는 강제 결혼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며칠간 사마의 집을 방문해 지진으로 망가진 집을 고치고 페인트칠을 했어요. 오랜 시간 무기력했던 사마가 저희와 함께하면서 조금씩 살아나더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밝은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죠. 너무나 몽글하고 행복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재난을 직접 겪어보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곁에 함께 있어 주는 사람'이라고 답했어요. 이재민들이 "우리 곁에 아무도 없었을 때, 함께 있어 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역시 그들을 의지했고 그들로부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서로의 이웃이 되었던 것이지요. 어떤 순간이 오든 항상 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것이 지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저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활동 현황



Eyyubiye, Süleymaniye 지역 등 천막촌 가정에 주 2~3회 식료품, 영양제, 방한복, 텐트, 침낭 배분

100가정



지진 및 홍수 피해 지역 가정에 주 1회 식료품 및 생필품 배분(총 4회)

250가정



난민센터 이용자 식료품 및 방한용품(담요, 침낭, 텐트, 전기난로 등) 배분

250명분



시리아 난민 가정 집수리 및 보수 공사, 공사 자재 및 기본 공구 지원

20가정



청소년 대상으로 주 2~3회 심리, 정서적 지원 활동(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놀이치료, 간식 지원 등)

50명



난민센터 지진 피해 복구 및 보수 공사

튀르키예 내 시리아난민 지원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다음 세대를 위한 아카데미교실 운영

영어(기본회화, 국제학교과정준비) 미술(아동심리, 창작활동, 수채화 등) 음악(피아노, 우쿨렐레, 기타, 드럼, 사운드 엔지니어 등) 체육(태권도, 킥복싱 등) 수학(학교 수업 보충 및 방과후교육) 등



부모와 청년 세대를 위한 직업훈련센터 운영

IT(컴퓨터 코딩,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건축(목공, 용접, 인테리어 등) 뷰티(천연비누, 네일아트, 헤어디자이너 등) K-Food(노점상, 푸드트럭)



국내 서포터즈 활동

한국 내 시리아 난민 지원 활동(직접 지원 및 전문 기관 협업 병행) 국내 이주민, 난민 지원 활동에 대한 연구와 네트워크 등



봉사단 파견

봉사단원 모집 및 훈련 1~3개월 현장 파견 활동, 이후 중장기 봉사자 또는 활동가로 집중 육성

재난 상황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재난을 숫자로 먼저 인식하는 안타까운 세상에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민들은 수많은 숫자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던 존엄한 생명이고, 사랑받는 가족이자 이웃이라는 사실을 떠올려봅시다. 이번 지진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12년 내전보다 더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이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들의 곁에서 이웃이 되어줄 그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튀르키예 긴급구호봉사 후기

- 한명철 단원

안녕하세요, 튀르키예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2차 긴급구호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돌아온 한명철 단원입니다.

저는 4/5 ~ 4/16 동안 튀르키예 동남쪽에 위치한 '산르우르프'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아름답고, 맑은 날씨로 기분 좋게 하는 이 지역에 그렇게 큰 지진이 있었던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눈앞에 보이는 광활한 평지와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는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분 좋음은 곧바로 시내 초입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완전히 사라졌고, 현실감마저 없어졌습니다. 갈라진 차도와 무너져내린 건물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활동가께서 말씀해주신 끔찍하고 급박했던 상황은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했던 첫날부터 바로 저희는 첫 번째 시리아 난민 가정 방문을 시작으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봉사단 활동 중 하나는 현지 난민 가정을 방문하여 피해 입은 집의 내부를 수리하고 내외부 벽을 페인트칠 하는 것이었고, 아동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두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그 두 가족들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도와주겠다며 다가오는데, 좋아할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른 피부색, 낯선 대화, 심지어 페인트칠하면서 얼굴과 옷에 떨어진 페인트로 더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충격적인(?) 비주얼까지... 도저히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심 가득한 사랑은 어디에서나 통하듯,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경계하던 눈빛은 어느새 장난기 가득한 순수한 눈빛으로 바뀌었고, 시간이 흐르자 아이들이 먼저 와서 안아달라고



진심 가득한 사랑은 어디에서나 통하듯,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경계하던 눈빛은 어느새 장난기 가득한 순수한 눈빛으로 바뀌었고, 시간이 흐르자 아이들이 먼저 와서 안아달라고 두 팔을 저를 향해 쪽 뻗는데 '눈물 날 것 같은 행복이 이거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팔을 저를 향해 쪽 뻗는데 '눈물 날 것 같은 행복이 이거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랑의 섬김은 소통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헤어지는 순간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만난 가장인 마함마드는 키도 크고 덩치 좋은 듬직한 세 아이의 아버지, 좋은 남편입니다. 큰 키에 그 덩치 좋은 사람이 헤어질 때 저희를 안으면서 눈물을 보이는데 저 또한 눈물 참기가 어려울 만큼 가슴 아팠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저희는 대지진 2차 진원지였던 '카흐라만 마라쉬'라는 지역도 방문하였습니다. 그 도시는 말 그대로 폐허였고, 처참, 경악, 슬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또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반쯤 무너지고, 기울어진

건물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장 속을 계속 걸으면서 다니다가 저희는 한 꼬마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3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난간을 붙잡고 저희 봉사팀을 뻘히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집으로 쭉르르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에서 약간은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 한 분이 저희 쪽으로 내려오더니 집으로 들어오라며 초대해 주셨습니다. 따라는 가면서도 약간 긴장된 상태를 어쩔 수 없었는데, 아저씨의 이름은 아이만, 아까 마주친 꼬마 소녀는 아이만 아저씨의 딸이었습니다. 아이만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봉사하러 왔다는 저희를 위해 집에 있는 모든 재료를 동원해 푸짐한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도저히 숟가락을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오늘 하루 종일 봤는데 어떻게 식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이만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느냐는 말에 아이만은 "우리보다 더 힘든 이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직 집이 있고 건강한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튀르키예에 와서 난민으로 살아가다가 내전보다 더 힘든 지진을 겪고 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이든 나누고 싶어 애쓰는 아이만을 보면서 뭐라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보통 긴급구호에서 사용하는 '재건' 활동이라는 것은 무너진 건물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는 것을 뜻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무너진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재건은 누군가의 대가 없는 사랑, 대가 없는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누군가가 제가 되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만에게.

메르하바!(안녕하세요!) 아이만,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만났던 그 시간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친절과 사랑이 아직도 생각나고,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의 짧지만 강렬했던 그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분께서 당신의 집 앞으로 우릴 이끌어주셨고,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과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동안 아이만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떻게든 힘을 보태주려고 애써주는 고마운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비록 우리는 지금 그곳에 없지만, 서로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여러분의 무너진 집과 터전 뿐 아니라 절망으로 무너졌던 마음들까지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꼭 다시 보고 싶어요. 꼭 다시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길 바라요. "아나 바헬박 끄피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을 배우는 두레줄기학교를 찾아서



작년 겨울, '두레줄기학교' 학생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모금캠페인을
진행하고 프렌즈에 후원금을 전달했는데,
올해에는 대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를 위해 학생들이 또다시 힘을
모아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 대단하고 멋진
아이들은 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두레줄기학교 이경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프렌즈 후원자분
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두레줄기학교
5학년 담임교사 이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두레줄기학교'라는 이름도 인상 깊었는데
요, 웬지 이름만큼이나 아이들도 특별한 수업을 받고 있을 것 같
은데, '두레줄기학교'는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두레줄기학교는 아름다운 잣나무 숲속에 세워진 숲학교라
는 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
며 생태교육을 통해서 자연을 배우고 농부교육을 통해서
농사를 배우기도 하고요, 앵두, 보리수, 복숭아, 자두, 밤, 체
리, 오디, 블랙베리, 살구가 계절마다 풍성해서 열심히 따놀
다가 목마르면 따먹기도 합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 벌레 소리, 새소리의 아름다운 합창을 들으며 공부하
는 행복한 학교이지요!

숲속의 합창도 아름답지만, 저희 학교의 밴드부와 오케스
트라반의 합주도 자랑하고 싶네요. 아이들 스스로 악기를
선택하여 배우고, 서로서로 맞추어 가며 멋진 연주를 만들
어낸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잘 맞춰지지 않아 서로 화를
내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멋지게
연주를 해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더 넓어지고 그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알기에 아이들의 합주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들과 매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데
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린 친구들과 이렇게 함
께 준비하고 진행하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학교의 가장 큰 행사 중에 '두빛나래축제'가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무언가 준비해서 발표를 해야 했는데, 우리
4학년 친구들이 다들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힘들어하더
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자주 하던 것 말고 다른 걸 해보
자!'라는 생각으로 "애들아! 축제 때 장사를 해보는 건 어
때? 수익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말이야!"라고 했던 말에
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현듯 '이 수익
을 우리끼리만 즐겁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혀서



선한 곳에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반 친구들에게
이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해지며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이 선한 손길이 전달되면 좋을까 함께 고민하던 중에, 그동
안 안타깝다고 생각만 해왔던 우크라이나를 위해 이 수익
금을 써보자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
선한가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군요. 그럼 그 준비 과정에 대해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선한가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 혼자 속으로 정했던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
게 하자'였는데요, 스스로 해야 그만큼 보람도 크잖아요. 그
래서 시작부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먼저 물어봤고,
"물건을 구매하러 가고 싶어요~"라는 얘기부터 계획을 점
차 발전시켜서 물건 구매, 분류, 가격 책정, 판매, 홍보까지
모든 학생이 참여한 총 5개의 팀으로 준비 위원회를 발족
(?)시키게 되었습니다. 하하.

이후 회의를 통해 간식들을 담은 지퍼백을 한 팩당 5천원
으로 판매가를 정하고, 물건 구매팀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대형매장에 가서 직접 장을 봤는데, 정해진 예산 안에서 무
엇을 살지 아이들이 직접 고민하고 골라보는 시간도 가졌
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동과 비용 계산만 담당했답니다.
간식팩을 만드는 것도 아이들이 직접 했어요. 구매한 물품
들을 컨베이어 벨트처럼 교실에 쭉 늘어놓고 조그만 손으
로 오물쭈물 옆으로 옆으로 넘기면서 각자 담당한 물품들
을 지퍼백에 담았지요. 한 팩이 만들어지면 마지막 친구는
가지런히 정리해서 놓아주고, 글씨 잘 쓰는 친구들은 '우크
라이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문구를 스티커에 써서 모든 팩
에 붙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교내 축제에서 판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
는데, 어느날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진행되는 '호만천 예술
문화축제'에 두레줄기학교도 홍보하고, 셀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우
크라이나 돕기 선한 가게>라는 이름을 걸고 학교 대표로



4학년 친구들 모두가 프리마켓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모금함과 간식팩 50개를
가지고 가서 무려 30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 후에 '잘하면 4학년 친구들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에 100만원까지 후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
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깜짝 놀랐죠. 그때까지는
이게 진짜 가능할까, 긴가민가 작은 의심을 가진 친구들
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되니까, 그 경험이 용
기가 되어 더 즐거운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선생님!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깐 되네요!" 그래서 다시 간식을
사고 포장하는 작업을 해서 총 100개의 간식팩을 추가
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도 앞선 경험으로 사기가 충
전된 아이들은 끊임없이 <우크라이나 돕기 선한 가게>
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진 못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진짜 돕고 싶
습니다. 도와주세요~" 이후 학교에서 열린 두빛나래축
제에서 총 100개의 간식팩을 다 팔고 결국 100만원 이



상의 수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학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교육철학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이 친구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배우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이'로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교육철학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이어 올해는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이재민들을 위해 후원을 해주셨어요. 올해 다시 후원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튀르키예 지진 소식을 들은 것은 올해 2월, 4학년 아이들의 수료를 앞둔 시기였어요. 그때 4학년 아이들이 "선생님, 튀르키예를 도와줘야 해요. 우리 선한 가게 또 열어요!"하고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 4학년이 끝나는 때라, 5학년이 시작될 때 해야겠다고 미루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긴 했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 고민하던 때에,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선한 가게 하죠~!"라고 제게 말씀을 휘리릭(?) 던지시는 거예요. 마치 얼른 시작하라는 신호 같았어요. 시간이 없다고 한 건 제 생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죠. 5일 동안 부지런히 물건을 사서 포장하고, 스티커에 예쁘게 글씨를 써서 봉투에 붙이면서 아이들과 열심히 준비했어요.

드디어 수료식 날! 새벽 6시에 아이들이 손글씨로 만든 현수막과 짐을 들고 평내호평역 앞 광장으로 갔습니다. 그날 따라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감각을 잃고 코끝이 아릴 정도로 엄청 추운 날씨였지만, 15명의 아이들은 오전 9시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며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출근길이라 다들 바쁘실 텐데 감사하게도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떤 분은 핸드폰 케이스에서 비상금을 꺼내 넣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지갑을 탈탈 털어 이것밖에 없다며 백 원짜리 몇 개와 십 원짜리 몇 개를 주셨는데요, 마음이 몽클해지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금 활동을 잘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수료식도 잘 마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모은 후원금이 100만 원이 넘는 것이었어요! 지난 우크라이나 모금 때 보다 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금액이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예상치 못한 큰 금액에 다 같이 깜짝 놀랐고요.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하기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와~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정말 보람되고 뿌듯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웃을 돕기 위한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무엇보다 모금 과정에 항상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결과라 보니 더 감동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온 두레줄기학교 친구들이나, 이런 나눔에 참여하길 원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나눠 주실까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제가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쉽게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모이고, 마음을 알아주는 분들이 함께 호응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나눔을 아이들과 이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더 좋은 길, 더 아름다운 길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그 길을 찾아가지 않으실래요? 우리의 '선한 가게'는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선한 나눔을 위해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나눠준 두레줄기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기특하게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손길은, 전쟁과 지진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두레줄기학교 아이들이 앞으로도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어나가기를 프렌즈도 응원하겠습니다!

. 핸즈온 필통 신규 키트 .

곰돌이의 짝꿍 곰순이와 귀여운 사자의 등장

곰순이

프렌즈 필통의 첫 시작을 함께 한 곰돌이 필통에게 짝꿍이 생겼어요! 바로 곰순이 필통입니다. 언젠가 만나게 될 아이들을 위해 한껏 예쁘게 머리띠를 하고 리본으로 단장한 곰순이! 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현장에서 밝은 핑크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자

“어흥~~” 사자이지만, 왠지 귀여운 애교를 부릴 것 같은 초록 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 후보 동물들이 있었지만, 현지 아이들에게 좀 더 잘 알려진 친숙한 동물로 선택이 되었는데, 상큼하고 짱한 초록색으로 시원한 매력을 뽐어내는 사자가 아이들에게 더욱 신나는 선물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군산간호대학교 동아리 '뜨개뜨개'

4월 6일~7일, 핸즈온이 멀리 군산까지 찾아갔습니다. 군산간호대학교 동아리 '뜨개뜨개'의 첫 모임 날, 핸즈온과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장거리의 출장도, 이들을 연이어 활동을 진행한 것도 처음이라 긴장되기도 했지만, 그곳에 도착해 만난 봉사자들의 밝은 에너지로 어느덧 긴장은 사라지고 즐거운 봉사활동시간이 되었습니다. '뜨개뜨개'는 원래 뜨개질을 통해 재능기부를 하는 동아리였으나, 올해부터는 손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각자 뽀뽀한 수업과 실습으로 바쁜 일과 중에 했음에도 바느질 방법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고, 서로 알려주면서 열심히 집중하며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첫 시간인 만큼 지도 교수님도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활동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의 실천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이어진 활동에 지칠 법도 한데, 교수님께서 첫 모임 기념으로 사주신 피자 덕분에 피곤이 사라지며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손길로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뜨개뜨개' 동아리의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핸즈온 이모저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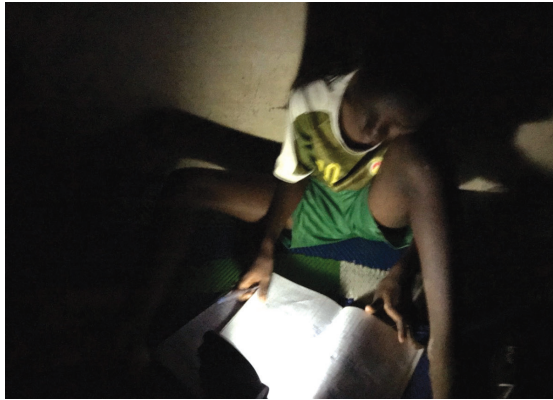
핸즈온으로 모인 사람들

'DHL KOREA'의 컬러링 봉사활동

5월 2일 ~ 5월 31일, DHL KOREA 임직원 40명과 프렌즈 컬러링 에코백&필통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벌써 3년째 프렌즈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컬러링의 솜씨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쉬운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장점인 만큼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높았다는 후문도 들었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완성된 35개의 에코백과 필통 세트는 여름에 파견되는 프렌즈 봉사단을 통해 현지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꾸준한 기부와 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DHL KOREA와 참여해주시는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담당자만 보기에 아쉬운 예쁜 솜씨들을 공유합니다!



전기를 통해 빛을, 그리고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은 해가 있을 때와 해가 지고 난 후의 차이를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시나요?

해가 지기 전에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의 구분은 어떤지?

세네갈 북부 칠레부바카르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짜 선물에 대한 감사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또 그 선물을 잘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구분이 명확해서 일상의 구분도 그에 따라 명확합니다. 당연한 이치지만, 한낮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적고,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은 피하고,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해가 질 무렵에 몰아서 하곤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는 전기를 쓰지만, 이곳엔 아직도 집에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간 사용량이 상당히 적기에 전기세 부담은 별로 없으나 전기 배선 등 전기시설이 없는 집에 전기 설비를 하는 일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방문을 해보면 하루 일을 마치고 피곤한 눈을 부릅뜨

고 숙제하는 아이들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나마 전기가 있는 집은 백열등 아래서 웅기종기 모여 공부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손전등에 의지하여 불편한 자세로 공부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공부하는 또 모국어(종족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공부하고, 학원이나 과외 한번 없이 대입 시험에 통과하는 이곳의 학생들을 보면 말입니다.

물론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전기는 휴대폰 충전과 전구를 밝히는 정도가 대부분이지만, 이것은 이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기선이 가까이 있음에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년부터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가 없는 가정에 전기로 빛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시범적으로 결연아동 중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2가정을 대상으로 전기설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집 바로 옆에 전봇대가 있었지만, 30년 가까이 집에 전기설치공사를 하지 못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던 가정이었습니다. 처음 전기가 설치되고 난 후 가정 방문을 했을 때 아동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을 표현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 아동은 이후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는데, 열심히 공부하더니 학업 성적이 2등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전봇대를 설치하고, 집안의 전기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동의 아버지는 신장이 좋지 않은 상태로 생업을 위한 일을 할 수 없고, 어머니 홀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전기가 설치된 이후 아픈 아버지가 밤에 화장실을 가거나 움직일 때 위험하지 않게 되었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두운 밤에 주로 집 안일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 역시 전구 불빛에 의지해 일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아동 또한 밤에도 공부하거나 숙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 자신감이 붙게 되고, 가족 모두 이전보다 한층 밝아진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아직 전기가 필요한 가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지역 조사를 통해 우선 지원코자 하는 가정은 7가정입니다. 가정마다 여건이 달라 비용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가정당 약 150만 원이면 외부에 전봇대와 전기선을 설치하고 집 내부에도 전기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1가정의 비용 전체 또는 일부를 후원하시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전기를 통해 빛을 선물하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함께하실 후원자분을 기다립니다.



전봇대, 전기선을 설치 및 1가정 전기공사 평균 비용 약 150만원

프렌즈 후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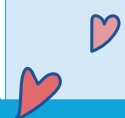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사업 정기 후원의 세계로~

사업 정기 후원(비지정)은 인도에서는 진료소, 미안마에서는 우물, 차드에서는 학교, 페루에서는 급식이 되는 변신의 귀재입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쓰임새가 많은 이 후원은 꼭 해야 할 사업인데 그에 필요한 후원이 없거나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참 고마운 후원이죠.

요즘 더 할 일이 많아진 프렌즈~ 덕분에 이 후원으로 지원되는 프로젝트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후원만 애타게 기다리는 사업장이 많답니다. 해마다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할 시기가 되면 저희의 고민이 무척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이 경쟁률을 낮춰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아이의 삶을 새롭게, 아동 결연 후원

프렌즈하면 떠오르는 전통의 강자, 결연 후원을 빼놓을 수 없겠죠. 프렌즈 아동결연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꼬마 신사, 꼬마 숙녀로 프렌즈와 처음 만났던 친구들이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해 곳곳에서 활약하는 가슴 벅찬 소식들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아이가 내민 작은 손을 꼬~옥 잡아주시는 후원자분들의 덕분인데요, 프렌즈 아동결연은 대규모로 진행하기 보다 아동 한명 한명에게 집중하고 직접적이고 세밀하게 케어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필요한 친구들을 찾아 후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연 후원만의 특별한 기쁨과 보람을 누리실 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프렌즈와 함께 후원하기 ▶



후원 대기 아동

인도 위닝 11명, 인도 호수마을 40명, 케냐 9명, 케스토플/슬롱구리 40명

건기로 기부하는 체리월드

건기만으로 기부가 되는 신박한 앱을 여러분께 추천하고자 합니다. 생활 속에 다양한 건기 앱을 사용하고 계실텐데요, 건기로 프렌즈에 기부하면서 앱테크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체리월드'를 소개합니다!

체리월드
홈페이지 www.cherryworld.xyz
서비스 관련 문의 support@cherry.community

체리월드 시작하기

체리월드는 다양한 SNS계정과 이메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스토어에서 '체리월드' 검색 후, 앱 다운로드 받고 체리 신규 회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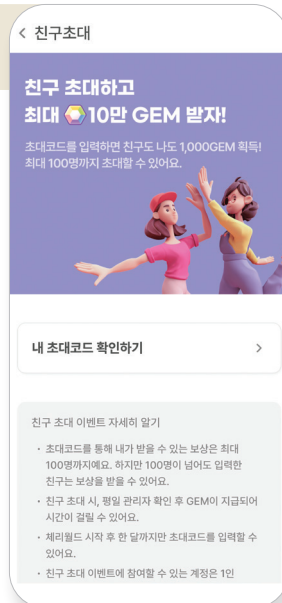


체리월드에서 GEM 모으기

체리월드에는 체리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수치화한 점수인 '임팩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임팩트가 쌓일수록 레벨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팩트도 올리고 GEM도 받아 볼까요?

친구초대하기

친구초대를 하면, 최대 10만 GEM을 받을 수 있어요 (1명 당 100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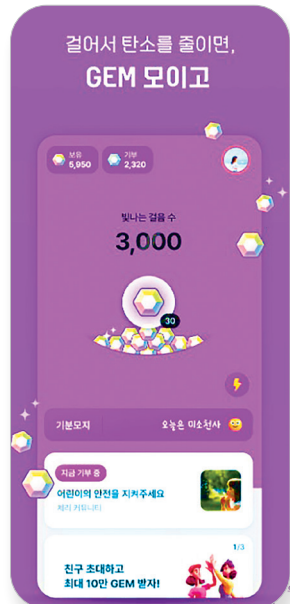
총총일기에서 오늘의 기분 체크

총총일기에서 오늘의 기분을 알려주시면, 보상으로 줌을 드려요 (1GEM 당 1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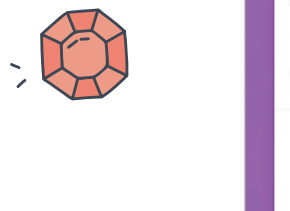


건기로 탄소 줄이고 GEM 모으기

지구를 지킨 당신에게 감사의 의미로 GEM을 드려요. 100걸음 당 1GEM이 쌓인답니다. (1GEM = 1원)



오늘 기분 체크하면 GEM 쌓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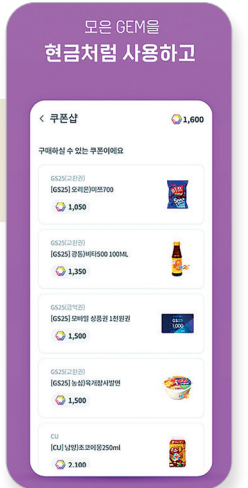


똑똑한 GEM 활용법

모인 GEM으로는 현금처럼 사용하여 쿠폰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한 나눔도 할 수 있습니다.

활용법 ① 상품 쿠폰 구매하기

GEM을 모아, 브랜드 상품의 쿠폰을 구매할 수 있어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썸을 모아 알뜰살뜰 앱테크를 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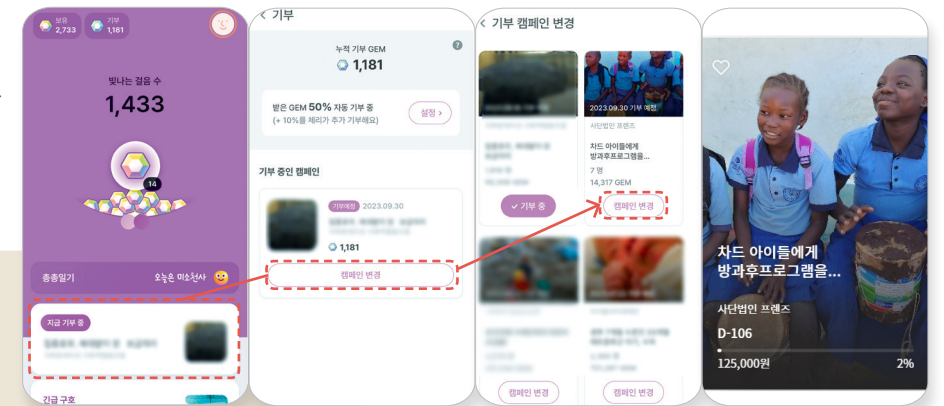


활용법 ② 기부하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캠페인 중에서 어떤 캠페인에 모금을 하고 싶은지 선택해줍니다. 프렌즈에서는 현재 차드 방과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캠페인이 진행중인데요, 여러분의 걸음으로 아이들에게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걸어서 10점을 적립할 때마다, 체리에서도 1점씩 추가로 함께 기부합니다.

캠페인 지정

메인화면 ⇨ 기부 캠페인 클릭 ⇨ 캠페인 변경 ⇨ 사단법인프렌즈 캠페인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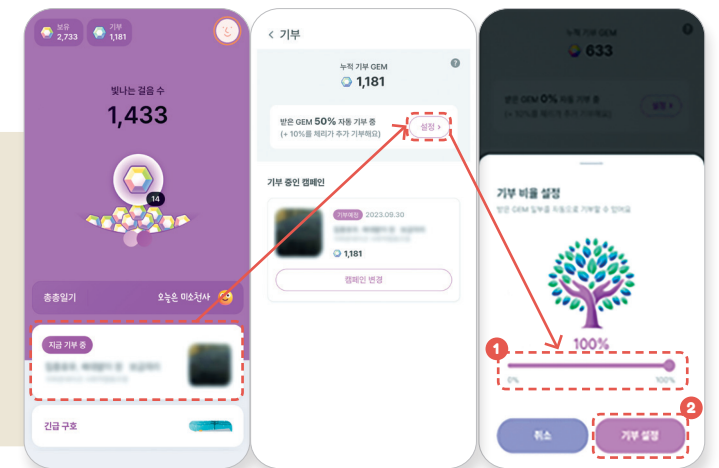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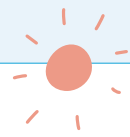
기부비율 설정하기

기부 캠페인 클릭 ⇨ 설정 클릭 ⇨ 기부 비율 설정하기

* 기부 설정 100%로 하면 더 많은 GEM이 기부됩니다

건기로 건강과 환경도 챙기고, 의미있는 후원도 쉽게 할 수 있는 체리월드에 함께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3 프렌즈 상반기 News



차드 마하나임 중학교 건축

차드 풀리띠 지역에서는 마하나임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건축을 시작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러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이 일상인 나라이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풀리띠 지역 안에 약 2,000명의 중등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중학교는 단 1곳 뿐이라서 초등학교 졸업 후, 중등교육의 기회를 얻는 학생들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제 마하나임 중학교가 완공되면, 그동안 중등교육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학업 중단 없이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을에서 두 번째 중학교가 되는 마하나임 중학교에서 선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갈 아이들의 모습과 미래를 그려봅니다. 중학교 건축을 위해 함께 후원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 후원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직업 훈련 2단계 사업 시작

2020년에 시작된 '인도네시아 직업훈련센터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자립지원 1단계 사업'이 2023년 3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4월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봉제훈련 기초반 9기 40명이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에서도 봉제 교육을 계속 이어가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봉제기술교육에서 2단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컴퓨터 교육까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직업훈련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역량을 개발시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통해 지역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함께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을 후원해주신 KT&G와 함께 상상펀드를 조성해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차 정기총회 개최 - 옥유수, 최병룡 신임이사 선임

2월 18일(토) 오륜비전센터 9층에서 개최된 제16차 정기총회에서 특별히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옥유수, 최병룡 님이 프렌즈의 신임 이사로 선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프렌즈의 후원자로서 지속적으로 응원해주셨던 분들이라, 두 분의 이사 선임이 더욱 반갑고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일상 중에 프렌즈와 함께 섬기고자 결단하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프렌즈의 든든한 동역자로서 더욱 빛나는 활약과 섬김을 기대합니다.



길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 컬러테라피 진행

2021년, 프렌즈와 업무 협약을 맺은 한국컬러테라피협회가 컬러테라피를 활용한 각종 재능기부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올해 4월부터는 구립길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서툴거나,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각종 컬러를 선택하여 색칠하고 모양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업, 관계 등 각종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른 못지않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로움'을 맛보고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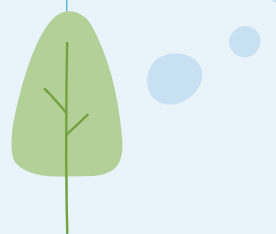
달리기로 빵을, 걷기로 후원을! - 체리워크와 함께하는 2023 빵빵런

살찌는 건 싫지만, 빵은 먹고 싶은 '빵둥이들의 마라톤' '빵빵런'에서 2023년도 강동구 지역 아동들을 위해 '맛있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주)1986프로덕션(대표 윤명호)이 주최하고 주관한 빵빵런은 5월 14일 독서 수변 무대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첫 마라톤인 만큼 참가권이 연일 매진되는 열띤 호응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참가자 1인당 1개의 빵, 음료, 쿠키 등을 후원할 뿐 아니라, 걷기로 기부할 수 있는 '체리워크' 플랫폼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모금도 진행했습니다. 빵빵런으로 마련된 후원물품은 강동구 14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타 지역 다문화 및 난민 가정에 전달되었고, 특별히 빵빵런과 이후 진행된 '댕댕트래킹'에서 후원한 반려견용품은 아이들에게 더욱 신나는 선물이 되었는데, 아이들 외에 강동구 유기견 보호센터인 '리본센터'에도 의미 있는 선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체리워크로 모인 후원금은 국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후원될 예정이며, 체리워크를 통한 걷기 기부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복을 나누주는 빵빵런과 기부캠페인을 준비하고 동참해주신 (주)1986프로덕션에 감사드립니다.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의약품 기부

프렌즈에서는 국내 의료사각지대를 위해 운영되는 사랑의클리닉의 무료 진료와 해외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프렌즈 봉사단의 의료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은 해당 사업이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다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여러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기부를 통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큰 힘을 주고 계십니다. 기부된 의약품들은 전문의료진들의 관리 하에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밝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귀한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친구 FRIENDS



사단법인 프렌즈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Tel 02-483-5007 Fax 02-6007-9857 E-mail friends@hifriends.or.kr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사단법인 프렌즈

후원계좌 국민은행 777501-04-111940 / 신한은행 100-023-015009

